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b>보 도 자 료</b>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	
배포일시	2019.5.22 (수)	담당부서	LA한국문화원 공연	
연락처	323-936-3015/hannah@kccla.org	담당자	Hannah Cho	

**한국전통무형문화 전수워크숍**  
**<춤과 소리를 위한 가락장구와 탈춤> 개최**



- ▶ 공연명 : 한국전통무형문화 전수 워크숍  
           <춤과 소리를 위한 가락장구와 탈춤>
- ▶ 일시 : 2019.5.30(목), 13:00-16:00
- ▶ 강사 : 강대승(해외명예전승자/미주예총 회장), 이현숙(국가무형문화유산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 ▶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http://www.kccla.org)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Hannah Cho

LA 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한국전통문화의 올바른 보존 및 분야별 전승기회 제공을 위해 "한국전통 무형문화 전수 워크숍" (Traditional Korean Cultural Heritage Workshop) 첫번째로 강대승(해외명예전승자/미주예총 회장), 이현숙(국가무형문화유산 제 49 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의 <춤과 소리를 위한 가락장구와 탈춤>을 5.30(목) 13:00-16:00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전수한다.

본 전수워크숍에서는 가락장구 배우기 프로그램과 송파산대놀이 탈춤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본 프로그램 이수 마지막에는 가락장구를 치며 장단을 달래어 소리를 만들고, 소리를 달래어 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장구를 연주하는데 있어서 궁채와 열채를 들고 하는 사물놀이나 농악놀이가 있고 궁채 대신 손으로 궁편을 치며 하는 가락 장구가 있다. 가락장구는 말그대로 잔가락을 이용해서 춤과 국악연주 소리등을 더 멋들어지게 만드는 하나의 기술이다.

이번에 진행하는 워크숍은 기덕과 구궁, 따드락, 따드락따 등 굿거리와 타령, 새마치, 자진모리 등을 아주 기초부터 가락장구의 매력이 어떤것인지 한국 전통 장단의 진수를 배워볼 예정이다.

탈춤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다른 인물, 동물 또는 초자연적 존재(신) 등으로 분장한 후 음악에 맞추어 춤과 대사로서 연극하는 것을 말한다. <송파산대놀이>를 전수할 이현숙 선생은 송파산대놀이 기본 춤사위 8동작을 전수한다. 송파산대놀이(松坡山臺놀이)는 송파 지역에서 전승되던 탈놀이로, 놀이꾼들이 탈을 쓰고 재담, 춤, 노래, 연기를 하며 벌이는 연극적인 놀음이다. 송파산대놀이는 서울·경기 지방에서 즐겼던 산대도감극(山臺都監劇)의 한 갈래로 춤과 무언극, 덕담과

익살이 어우러진 민중의 놀이이다. 이 놀이는 매년 정월 대보름과 단오·백중·추석에 명절놀이로 공연되었다.

**\*\*기본 춤사위 8 동작**

- 1.불림 2.화장무 3.짚은 화장무 4.굽사위 5.여달이 6.깨끼리(팔뚝잡이, 무릎치기)
- 7.거울보기 8.멍석말이

이번 전수워크숍은 한국의 가(歌).무(舞).악(樂)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체험하고 즐길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한국의 전통 춤과 음악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한국 문화를 새롭게 배우고 체험하고 전수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워크숍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www.kccla.org](http://www.kccla.org), 323-936-3015

<강사 약력>

**강대승**

국립 가무단 단원

국립. 시립 무용단 수석무용수

국가무형문화재 제 34 호 강령탈춤 이수자

두레패 사물놀이 대표

대한민국 홍보 예술단 단장

두레민속 예술단 단장

강령탈춤 해외명예전승자

미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현숙

국가무형문화재 제 49 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송파답교놀이, 송파 백중놀이 전수자

마틴루터킹데이 퍼레이드 참가공연

캐나다데이 참가공연

한국, 니과라과 수교 52 주년 기념 참가공연

현 두레민속예술단

/끝/